

KAIST 최연소 이슬기 박사,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 입사

IMEC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연구 성과 인정 받아



올해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스물다섯 나이에 최연소 박사학위 타이틀을 차지한 전기및전자공학과 이슬기 박사가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에 입사한다.

이슬기(사진) 박사는 3월부터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인 IMEC-NL(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에서 일하게 돼 이달 말 출국할 예정이다.

1987년생인 이 박사는 서울과학기술 2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지난 2004년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에 입학해 3년 만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원에 진학해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는 학부 3학년이던 2006년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대한 학

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 연구업적을 쌓기 시작했다.

또 대학원에 진학해 반도체시스템 연구실에서 '웨어러블 헬스케어용 SoC (System on Chip) 및 관련 시스템'에 관련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세계 최고의 학술 대회인 국제 고체 회로 소자 회의(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 Conference)를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에서 주최됐던 학회에서 총 11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10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일반적으로 회로설계 분야에서 대학원과정 동안 세계적인 학회에서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할 때 11편의 논문이 채택되고 그중 3편이 우수 논문에 선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2011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수면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착용형 수면다원검사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았다.

이 박사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 같은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최첨단 나노전자기술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의 중심 연구기관인 IMEC에서 일하게 됐다. 이 연구소에는 저전력 생체신호 검출 및 처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모여있다.

이슬기 박사는 "학부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기면서 연구했더니 뜻밖

의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훌륭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싶다"며 "남자가 80% 이상 차지하는 이공계에서 여성과 학자를 꿈꾸는 후배들의 멘토가 돼서 창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열린 KAIST 학위수여식에서는 이슬기 박사를 포함해 박사 442명과 석사 1102명, 학사 830명 등 총 237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육심무기자 smyauk@dailycn.net